“화엄경 독경으로 지혜 증득을”

해인사 2차 완독법회 입재
6월 21일 보경당서 봉행
1590일 대장정 본격 시작
월 1회 총 53회 독송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는 6월 21일 보경당에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4년 5개월, 159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해인사가 1590일간 〈화엄경〉을 완독하는 두 번째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6월 21일 보경당에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4년 5개월, 159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입재법회는 법계탑 앞마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보경당으로 옮겨 진행됐다.

화엄경 완독대법회는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전편을 총 53회로 나누어 매월 1회씩 독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인사는 지난 제1차 완독법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중과 함께 경전 독송 수행의 원력을 세우며 불교 수행의 중심도량으로서 소임을 이어간다.

입재법회는 명고·명종 타고, 육법공양 봉헌에 이어 방장 학산 대종사의 헌향, 전계사 무관 대종사의 헌다, 주지 혜일 스님의 헌화로 시작됐다. 이어 청법게를 올린 뒤 학산 대종사의 입재 법어가 이어졌고 법회 휘호가 대중 앞에 전달, 낭독됐다.

방장 학산 대종사는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이며 우리는 지금 다시 그 지혜의 바다에 들어선 것”이라고 법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짠맛 하나를 이루듯, 중생의 마음이 화엄 도량에 들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해진다”며 “믿음 없이 깨달음도 없다. 형식이 아닌 신심으로 독송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종사는 〈대방광불화엄경〉 일곱 글자만 외워도 업장이 녹는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경전 이름만 외워도 복이 열리는데 전권을 독송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제2차 완독대법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회는 부처님 지혜를 도량 가득 채우는 위대한 수행”이라며 “지난 1차 법회 경험을 바탕으로 80권을 53회로 나누어 보다 또박또박 읽고 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빠짐없이 끝까지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이신규 불자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무량한 지혜의 바다에 첫걸음을 내딛나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경을 올리며, 화엄경 독송 수행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리고 “세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자비와 평화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법회는 입재의식에 이어 〈화엄경〉 첫 독송과 화엄천도의식, 시식, 회향의식으로 원만히 회향됐다.

한편, 법회에는 서울·부산·대전·대구·창원·진주 등에서 온 동참자들이 함께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불자들도 실시간으로 법회에 동참했다.

지자체 오락가락 행정에 용천사 수목장 준공 지연

함평군 민원봉사과는 “문제 없다”
가족행복과 “경내지 아니다” 해석
용천사 “자의적 판단에 사찰 피해”


함평 용천사에서 추진하는 ‘꽃무릇 수목공원’.

전남 함평의 전통사찰 용천사(주지 혜용 스님)가 조성 중인 ‘꽃무릇 자연수목장’이 준공을 앞두고 지자체 관할 부서의 자의적인 행정 판단에 가로막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천사는 2023년 함평군의 개발 및 건축 허가를 받아 수목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공정을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종 준공검사 단계에서 함평군 가족행복과가 “해당 부지는 사찰 경내지가 아니므로 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된 경내지의 법적 정의를 무시한 채, 일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건축 허가까지 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을 뒤바꾸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용천사 측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찰 경작지로 용천사의 생활 및 종교활동과 밀접히 연계돼 있던 곳이다.

혜용 스님은 “해당 부지는 사찰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주어 활용했던 공간으로, 사찰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며 “도대체 이 땅이 경내지가 아니라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경내지의 범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해당 부지가 위치한 함평군 광암리 마을에는 주민 약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5명의 주민이 사업에 반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행정소송은 모두 패소한 상태로, 법적으로는 사업 진행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용천사는 판단하고 있다.

혜용 스님은 “사찰은 단순히 수목장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이곳의 영령을 기리고 지역 불자의 장례복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목장을 추진해 왔다”며 “때문에 잔디 대신 꽃무릇을 활용해 누구든지 힐링하며 머물 수 있는 공원형 자연장을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함평군 민원봉사과는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으며,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 있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협의기준’에서 ‘장사법’에 관련된 주무 부처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가족행복과에서 경내지 여부를 문제 삼아 허가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 사찰 측은 “행정 내부의 이견으로 사찰에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용천사 꽃무릇 수목장 개장은 현재 연기된 상태. 혜용 스님은 지난 6월 22일 함평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군 측은 경내지 여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혜용 스님은 “사찰과 주민, 그리고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길 기대했지만, 정작 행정은 사찰의 역사성과 법적 근거보다 형식적 논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민 행복’ 석남사 풍등, 밤하늘 수놓다

6월 22일 1000여 명 운집
덕운 스님 “국민 행복 담아”



한류 드라마 ‘도깨비’ 명소로 널리 알려진 안성 석남사가 국운융창과 국민 안녕을 기원하는 붉은 풍등을 밤하늘에 띄워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사진〉

안성 석남사(주지 덕운 스님)는 6월 22일 사찰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8회 서운산 소원 풍등 날리기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100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각자의 서원을 담은 소원지와 함께 대형 풍등을 띄우며 나라의 안정과 모두의 평안을 발원했다.

석남사 주지 덕운 스님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은 풍등을 크게 만들어 모두의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날려 보내자”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자.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소원에 집중하며 모두의 삶이 맑고 밝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개회식 이후 BBS만공스타즈 가수 구나운의 무대를 시작으로 트리오 그룹 ‘로투라’와 안성 출신 염기랑의 공연이 이어졌고, 발라드 가수 한경일과 기타리스트 정선호, 인디 가수 신현희 등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 무대는 전자음악과 불교경전을 접목한 뉴진 스님의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안성=노덕현 기자

수덕사, 하안거 반결제 승보공양·산행

6월 23일, 가야사지서
사부대중 600명 동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을사년 하안거 반결제일을 맞아 6월 23일 가야사지에서 승보공양 법회를 열고 ‘백제의 미소길’을 걷는 반철산행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주지 도신 스님, 정혜사 능인선원 유나 현전 스님, 선덕 지운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들과 결제 대중, 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수덕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가야산을 지키고 청정 수행처로 후대에 전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백제의 미소길’을 걷는 반철산행과 수행 중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방장 우송 대종사는 법문에서 “세상은 언제 어디서든 선불장이며, 반철산행은 납자에게 주는 필수 보약”이라며 “산길을 걷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몸과 마음을 뒤집는 소용돌이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반철산행은 19회, 승보공양은 14회를 맞았다”며 “특히 반철산행은 송전탑·골프장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가야산을 지키기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덕사 신도회는 산행을 끝낸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막국수를 공양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표충사 자연 방사

(주)숲속의작은친구들
인공 증식 성공 ‘쾌거’



사회적기업 ㈜숲속의작은친구들(대표 최정민)은 6월 19일 경남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와 함께 비단벌레를 원서식지에 방사하며 본격적인 생태복원 사업에 돌입했다.〈사진〉

이번 방사는 2024년 체결된 ‘비단벌레 서식환경 보전 및 복원 업무협약(MOU)’의 첫 결실로, 지난해 표충사 일대에서 채집한 공시충(증식용 어미벌레)을 기반으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결과다.

비단벌레는 초록, 금색, 붉은색의 금속광택을 지닌 회귀성 곤충으로, 국내 개체 수가 극히 적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숲이 변화하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촌을 물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호원문화재단 ‘우리 多 함께 해You’ 성료

6월 22일까지 수덕사서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이사장 주경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이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예산 수덕사에서 개최한 ‘우리 다(多) 함께 해유(You)’가 5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사진〉 사전예약한 12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소통하는 장으로 꾸려졌다.

21일 열린 4차 행사에는 26명의 다문화가족이 참가했으며, 수덕사의 역사와 문화 해설, 명상, 다도, 사찰음식 등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사장 주경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정신건강 돌봄 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세종 광제사 주지)이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미지)와 함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돌봄에 나선다.

두 기관은 6월 24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세미나실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통문화 기반 심신 치유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협력 △전문 인력 교류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우 스님은 협약식에서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불교 전통문화가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완주 송광사, 다문화가족 템플스테이

6월 20~21일 26명 동참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송광사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완주군 가족센터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관내 다문화 가족 26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송광사와 완주군 가족센터(센터장 오인철)의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송광사에서 사찰 예절 교육과 도량 탐방에 이어 사찰음식 공양, 타종, 걷기 명상, 연꽃 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1000만원 전달

6월 2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가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또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마이산 탑사 신도회,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도 동전 저금통 100개를 모아 함께 전달했다.

6월 25일 진안군 사통팔달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사)붓다 총괄이사 현진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장과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에서 모은 소원동전과 신도들의 정성으로 동전 저금통을 모아 진안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전달하게 됐다” 며 “작은 금액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환희롭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